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5월 24일(일) 제1590호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5월 24일까지 비서구권 교회지도자, 목회자 및 선교 리더십 참석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가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를 주제로 Acts29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에서 지난 5월 19일(화)부터 5월 24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과 사역 노하우 등을 비서구권 교회지도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비서구권 교회지도자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역팀 리더십,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에서는 설교와 강의, 소그룹 토의, 1인극 공연, 순예배 시연, 선택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강의를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함태경 본부장(CGN), 최성완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등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역자 20여 명이 한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Movement인가? Monument인가?’ (막 2:18-22)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몸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선교가 교회의 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원동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토니 리스턴 목사(Tony Liston, Hki 총회장)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면서 “이번 콘퍼런스에서 전수받은 내용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온누리 IN2 콘퍼런스는 비서구권 교회 지도자들에게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과 사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비타민C’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난해 ‘온누리 IN2 콘퍼런스’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까지 비서구권 14개 국가 교회지도자 2천 명이 참석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세미나, 성도·상담사역자 등 356명 참석

2026 정신건강세미나가 지난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불안 해를 해결하고 싶은 성도, 그들을 돕고 싶은 성도 및 리더십, 교역자 등 356명이 참석했다.

2026 정신건강세미나에서는 정신, 정서, 통합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졌

다(관련 기사 5~8면). 권수영 교수, 김성진 진료부장, 이현주 교수, 채정호 교수, 장석연 원장, 채규만 교수, 최용일 장로, 정주호 대표, 유현주 교수, 남윤영 박사, 안해용 목사, 이기원 목사가 강의했다.

전순분 권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이번 세미나는 큰 위로와 은

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치유를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1,100여 명 약정

지난 5월 16일(토)과 17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 행사에 성도 1,100여 명이 참여했다. 약정 금액은 집계 중이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 행사에서는 주일예배 특순, 홍보부스 및 포토부스 운영, 사진전 등을 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더멋진가족이 되어주신 성도들께 감사하다”면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열방에 생명의 물로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NGO 더멋진세상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는 5월 24일(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문의: 02-2271-2246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

6월 10~12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오는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올해 마리아행전 주제는 ‘왕의 기도’ (요 17:1)다.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2026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에서는 10일 이재훈 위임목사 ‘자신을 위한 왕의 기도’, 11일 정명호 목사(해성교회) ‘교회를 위한 왕의 기도’, 12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세상을 위한 왕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6월 10일(수)과 11일(목) 양재 사랑홀, 나머지 캠퍼스 성도들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모인다. 12일(금)에는 모든 캠퍼스 성도들이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10일과 11일은 양재온누리교회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하고, 유튜브로는 송출하지 않는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5월 24일(일)과 31일(일) 주일예배와 수요일 전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선착순 모집한다. 온라인 및 전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

문의: 02-3215-3667(서빙고), 02-570-7277(양재)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차는 행복을 싣고’

전도사역본부, 청풍리조트로 부모맞춤전도여행

전도사역본부에서 드디어 내일(5월 25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로 ‘부모맞춤전도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기차는 행복을 싣고’다. 65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차 안에서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고·미·사(고마웠던 것, 미안했던 것, 사랑한다는 고백)’ 포스트잇 편지쓰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 사연 방송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포스트잇 편지와 가족사진은 청풍리조트에 전시하고, 기차 방송실을 이용해서 신청곡과 사연도 소개할 예정이다.

청풍리조트 연회장에서는 식사와 콘서트, 여성민 목사의 메시지, 결신 카드 작성, 산책 등을 한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싱어 지미션,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세례식은 청풍리조트와 귀갓길 기차에서 한다. 특히 출발 전부터 세례 신청자 28명이 접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나를 따라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머뭇거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은 갈등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철저히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로마서〉6장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단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실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을 생각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결단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율법주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위에서만 제자도의 명령이 은혜가 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건

〈로마서〉6장에 나타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짓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비웃습니다. 가장 예리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상상하며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1절).

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10번이나 사용합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

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2절).

바울은 여기서 동사의 시제를 매우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계속 유효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그것은 신앙의 비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근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는가?”라는 표현은 미래에 반복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 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로마서〉6장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진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5장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죽음입니다. 〈로마서〉6장은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짐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라, 영역의 이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영향력을 받던 권세와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로 우리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연합, 혹은 함께, 같이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 보면 ‘함께’라는 의미의 ‘σύν’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여러 구절에서 반복합니다. 4절에도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5절에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6절에도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것은’, 8절에도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단 하나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상상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여정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입니다. 4절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세례’라는 신앙 의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4절).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유효합니다. 마틴 루터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 암시도, 최면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을 굳게 붙잡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습니까? 진정한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설명하는
세례, 접붙임, 곰박힌 처형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5절).

‘연합되었다’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식물을 접붙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자라나다’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만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줄기를 깊이 가르고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고, 동여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가지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 접붙임이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접붙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단어를 써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짚어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죽은 것을 짚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의미합니다. 당시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이 묶는 게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독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함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접붙임을 해서 묶어놓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종교의식인 세례 의식으로, 자연의 원리는 접붙임으로, <고린도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처형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6~7절).

‘벗어났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개 영어 번역본에서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더 깊은 의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입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 그를 대신해 죽었

고, 그것을 절대 권한을 가진 판사가 이미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형을 치렀으므로 이 사람은 자유라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고, 불의함이 있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난기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행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용서받았다,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죄에서 벗어난 자로 여기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11절).

‘여기십시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첫 번째 명령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계속 설명할 뿐입니다. 11절에 와서 처음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문법입니다. 사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회계장부의 언어입니다. ‘셈을 셈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을 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회계장부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이 죽었다고 입력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회계장부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선 산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체험

저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것이 삶의 능력과 회복,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 연합의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요약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개역개정).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마귀에게 말해야 한다. 모든 유혹에 말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날마다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강하게 결심할수록 우리는 절망합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여기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아직 내가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가 준 영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제자도의 토대요, 근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해야지’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11절).

이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마귀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다가와도 별 볼 일 없어.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길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기초 위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내 한 표가 정말 중요할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내 한 표로는 아무 변화도 못 만들 거야. 그래서 투표 안 할 거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약 1억 6천만 명이 투표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다. 1억 6천만 표 가운데 단 한 표가 변화를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이 투표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아니다.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한 표는 지역 선거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거를 생각할 때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간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표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든 대통령 직무실에 누가 들어가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훨씬 적은 표 차이로 결정된다.

2017년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는 2만 3천 표 이상이 던져진 선거에서 동점이 나왔다. 규정에 따라 그릇에서 이름을 하나 뽑는 방식으로 승자가 결정되었다. 2016년 뉴멕시코주 하원 선거에서는 1만 4천 표 가운데 단 2표 차

이로 당락이 갈렸다.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위원회 선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를 결정한다. 이런 선거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수백 표 차이로 결정된다.

또한 선거는 단지 누가 공직에 오르느냐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거에는 주민투표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법을 결정한다. 전기나 교통 같은 공공 서비스 규정에서부터 낙태 제한과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많은 사람이 자신의 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선거는 결국 누가 투표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신을 수천만 명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천만 명이 자신의 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2020년에는 약 2억 4천만 명의 미국인이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약 1억 6천8백만 명만이 유권자로 등록했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사람은 약 1억 5천8백만 명이었다. 즉, 투표할 수 있었던 8천2백만 명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약 8천1백만 표를 얻었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단 34%에 해당한다. 더 작은 선거나 주민투표에서는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선거는 전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설득보다 참여가 훨씬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한 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그리스도인에게 선거에 참여할 책임은 단지 선거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셋째, 투표는 청지기적 행위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를 세우셨다고 말한다. 이는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왕족으로 태어나 왕이나 여왕이 될 운명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왕이나 여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누가 정부를 맡을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 권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최고의 방법으로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와 투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투표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 최종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책임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자신의 표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므로 투표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지역 선거에서는 한 표가 매우 큰 의미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

“투표는 청지기적 행위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젠더주의

입법, 사법, 행정의 젠더주의 흐름,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은경 변호사
(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

우리는 지금 인간의 성과 결혼, 가족에 관한 근본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은 더 이상 자명한 전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심지어 개인의 자기 선언대로 성별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권리 담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통적 결혼과 가족 제도 역시 ‘이성에 중심의 차별 질서’라는 이름 아래 해체의 압력을 받고 있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꽤 강력하다. 이러한 흐름의 배후에는 전통적 사회질서와 가치 규범을 억압 구조로 재해석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신앙적·윤리적 입장이 점차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던의 상대주의로 객관적 도덕 기준이 희미해진 현대 사회에선 법이 특정 가치를 강제하는 도구로 과잉 작동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도 법을 매개로 움직이는 입법, 사법, 행정이 ‘종교적 양심에 기초한 공적 발언’을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봉쇄하려

는 움직임에 강하게 동조하고 있다. 비록 인권과 평등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종교적 신념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 넣고, 전통적 혼인과 가족에 관한 생각과 표현마저 억압하려 한다.

입법이 젠더주의를 추동하는 대표적 사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름대로 포괄적인 차별 개념이 ‘종교적 가르침, 도덕적 비판, 학문적 논쟁, 정치적 의견’까지 차별과 혐오로 단죄할 수 있는 법이다. 이젠 하나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률 개정안이 이른바 ‘쪼개기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국회에 발의 중이다. 그러나 이름이 달라도 방향은 같다. 성 다양성 존중, 사실상 혼인 관계 보호, 차별과 괴롭힘 규제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법률 속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담겨 있지만, 제3의 성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차별 사유로 공식화되고, 남녀의 성별 구분과 혼인·가족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종교기관이나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교 언론의 설립 이념과 신앙 고백에 기초한 운영 방식도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곧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 전반을 통제하는 강력한 표현 규제 체계이기 때문이다. 설교와 전도 콘텐츠, 기독교 언론과 방송, 교회 홈페이지와 SNS 게시물까지 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작동할 경우,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논란성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더라도 민간 플랫폼을 통한 우회 검열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사법의 최근 흐름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하여도 사적 공간과 자발적 의사 합치를 이유로 군형법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기독교방송의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에 대한 징계처분을 승인하거나, 쿼터 행사 대관 허가 취소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등 성과 가족에 관한 기존 법질서의 경계를 대폭 확장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를 사법부가 해석의 이름으로 먼저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 특히 교육 영역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적지 않다. 사회적 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주입하는 젠더 교육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전통적 성 윤리를 공적 교육 영역에서 밀어내 버린다.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난 동성애 인구 증가, 성전환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우려도 외면하기 어렵다.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젠더주의 흐름에 대하여 더 이상 수세적 방어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젠더 이슈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로잔 선언의 입장을 법학, 의학, 보건학,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의 언어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논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씽크탱크’를 구축하고, 관련 논문과 연구, 각종 토론과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의 젠더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쟁점 소송과 입법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 기독교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고, 기독교 플랫폼을 통해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대중적인 문화적 영향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 논쟁은 단지 ‘특정 법률 하나를 막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여성과 남성은 무엇인지, 결혼과 가족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신앙에 근거한 발언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다.

한국 교회는 창조 질서라는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분명하고 지혜로운 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담대한 증언이다.

2026 정신건강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 하나님 앞에 꺼내놓다

자책의 짐 내려놓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왼쪽부터 김지혜 권사, 홍준영 집사, 임유미 집사.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불안을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게로 여겼다. '믿음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불안의 원인이 마치 신앙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지혜 권사(고양은평공동체), 홍준영 집사(강동은누리교회), 임유미 집사(강동은누리교회) 역시 오랜 시간 불안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불안하면 안 된다'고 여기며 죄책감이라는 짐을 한 겹 더 얹고 살았었다.

함께 찾아오는 불안과 자책

김지혜 권사는 오래전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했다. 그 이후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김지혜 권사가 처음 공황을 경험한 순간은 심방 자리였다. 순모로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다.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뒤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더 두려워졌다. 리더십의 자리에 설수록 오히려 피해야 할 상황이 늘어만 갔다.

홍준영 집사는 안정되지 않은 어린 시절 기억이 늘 발목을 잡았다. 삶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그때의 두려움이 또 생길까 봐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했다. 아이가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으면 1분에 한 번씩 전화

를 걸었다. 그 불안이 가족들의 숨을 조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자신의 불안을 교회에서 털어놓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임유미 집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았다. 건강, 관계 등 삶의 곳곳에서 불안이 찾아왔고, 심할 때면 가슴이 쿵광거리는 신체 증상까지 생겼다. 임유미 집사는 불안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기도를 했다. 그 순간만큼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불안이 돌아왔다. '불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임유미 집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안을 다루는 방법들

때로는 짧은 한 문장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기도 한다. 2026 정신건강세미나가 세 사람에게 그 경험을 하게 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불안을 쉽게 설명해 줬고, 불안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줬다. 그것만으로도 자책의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홍준영 집사에게는 "불안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라는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됐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있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불안이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안이 마음뿐

만 아니라 몸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시각도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려면 몸부터 잘 돌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유미 집사는 그동안 불안을 눌러 놓는 방식을 선택했음을 알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씀이 큰 울림이었습니다. 불안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말해 드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안은 지식이나 노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지혜 권사에게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메시지가 마음 깊이 남았다. 단순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자리를 제대로 직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던 일로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 영혼, 몸,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깨달음은 곧 다짐으로 이어졌다. 임유미 집사는 정신건강세미나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일상에서도 하기로 했다. 가슴을 여는 동작 하나가 몸과 마음을 함께 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가슴을 여는 운동 같은 스트레칭을 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동안 누르려고만 했던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다룰 것입니다."

김지혜 권사는 회복을 향한 걸음을 다시 내디뎠다. 혼자 건디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제 안에 있는 불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 건디려 하기보다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홍준영 집사는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몸을 돌보기로 했다.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소망도 생겼다.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위해 건강한 몸부터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차(茶)도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또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누구나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기자



◆ 5월 19일(화)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몸과 신경계로 이해하는 신앙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신과 영혼의 문제로 생각했던 불안에 관해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교회에서 “이제 그만 털어야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신앙 없는 불신자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가해자가 되는 ‘2차 피해’입니다.

트라우마의 특징은 이중 구조입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사건 이후에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섞어 버리고, 특히 몸의 증상으로 남습니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애매한 현실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편도체(감정 뇌)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이성 뇌)의 기능이 제한됩니다. 불안은 생각이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치료 접근을 신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향식 접근’입니다. ‘몸-감정-사고 순서’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은 ‘자원’ (Resource)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체 자원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서로 순환하면서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사운드(부-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숨을 뱃어내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편도체 활성화와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안전한 장소, 보살피 주는 존재, 지켜주는 존재, 지혜를 주는 존재를 떠올리는 것이 불안 속에서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라우마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

셨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 교회는 트라우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불안도 병일까?

‘불안’을 주제로 여러 관점과 뇌과학적 이해, 불안장애의 원인과 치료, 복음과 불안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철학은 인간이 죽음과 소외 때문에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억압된 충동과 무의식적 갈등, 고전적 조건화, 비적응적 사고 패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을 불안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안은 위협을 알리고,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며, 아담처럼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불안은 편도체가 유발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편도체가 반응하는 동시에 전

전두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전전두엽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이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회로 연결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를 재연결하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이상 반응(신체)’입니다. 둘째, ‘과도한 걱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셋째, ‘회피 반응(행동)’입니다. 불안장애는 유전적 체질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생활 습관, 성격, 양육 환경 등이 촉발 요인이 돼서 뇌 기능을

변화시킬 때 발생합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수면 부족, 커피·술·에너지 드링크 섭취, 불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불안장애의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치료(약물치료)’입니다. 둘째, 인지·행동·수용전념을 다루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셋째,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석정신치료’입니다.

우리에게 주로 나타나는 불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소외에 대한 불안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산 소망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너희와 함께함이라”(마 28:20)라는 말씀

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줍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권합니다.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료시설인 병원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진료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입니다. 일은 열정의 단계, 침체의 단계, 절망의 단계, 무관심의 단계로 나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절대적 빈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셋째, ‘건강’, 넷째, ‘인간관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대표적으로 불안, 우울, 분노가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분노는 우울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2차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감정이며, 우울은 과거의 상실과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불행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정신의학자 조지 베일런트는 장기 종단연구를 통해 행복의 특징으로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 배움을 통한 성장, 안정적인 관계, 비흡연, 절제된 음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행복은 몸과 마음의 균형, 즉 건강이었다. 그런 토양에서 피어

나는 열매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는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하루 한 번 자연을 경험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 달에 한 번은 충분한 쉬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즐겁고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하는 상태, 즉 ‘플로우(flow)’”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생존, 사랑, 영향력, 자유, 재미의 욕구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안과 우울, 분노는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시대

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맞춤과 따뜻한 터치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뭐야?”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을 통해 관계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변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빛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삶의 중요한 욕구들을 건강하게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헌주 교수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불안의 스펙트럼 치유

여러분, 사람은 100%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무엇입니까? 불안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감정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리적 자율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광범위하고, 불유쾌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을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생존 시스템입니다. 불안하니까 보험도 들도, 저축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불안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정서입니다. 문제는 불안이 지나칠 때 일어납니다.

불안이 많다고 모두 병은 아닙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해야 하는 기능을 잘하지 못할 때, 불안으로 인해서 내 신변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증상이 있을 때 병적 불안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 고통, 기능 저하, 위험성이 병적 불안의 기준입니다.

불안이 병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회피’입니다. 문제를 피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마주하기 힘들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면 병이 생깁니다. 불안이 오래되면 관계가 끊어지고, 행동이 고착되고, 점점 고립돼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 마음과 몸, 행동과 영성을 통합해서 다차원적 체계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스펙트럼 치유’입니다. 수용, 변화, 연결, 강점, 지혜, 몸, 영성, 이 일곱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그중에서 영성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성은 불안의 근원인 ‘통제하려는 마음’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 챙김’ (Mindfulness)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영성 챙김’ (Spiritfulness)을 해야

합니다.

‘영성 챙김’은 현재에 머물며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분임을 인식하며, 그분과의 동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채정호 교수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5월 20일(수)

우울과 불안 다루기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잘 다루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인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누구나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우울감과 절망감, 흥미 저하, 식욕·수면 변화 등이 2주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우울증 대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 습관의 규칙화’입니다. 수면 관리, 규칙적인 식사, 햇볕 쬐기와 운동이 도움이 됩

니다. 둘째, ‘행동 활성화’입니다. 가벼운 운동, 새로운 취미, 작은 성취 경험으로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인지적 접근’입니다. 기분 일지 작성, 부정적 사고 전환, 명상과 요가 같은 마음챙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카페인을 줄이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장애는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걱정과 초조함,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갈등, 신

경학적 요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관리법은 ‘이완 운동’, ‘사고정지법’, ‘영성적 접근’이 있습니다. ‘복식호흡’과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서 불안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인 ‘그라운드링’, 현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챙김’ 등의 ‘이완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정지법’은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질 때 주의를 돌리는 연습입니다. 또한 ‘영성적 접근’은 묵상과 감사일기, 작은 실천 등인데, 영적 성장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윗처럼 솔직히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는 것도 회복에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은 건강한 몸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좋은 대인관계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영성이 깃듭니다.

우울과 불안은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 자신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석연 원장
(그로웨이브 심리상담센터)

불안에 대한 뇌 과학적 근거 기반 치료 기법

불안은 죄나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뇌의 정보 시스템이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더 큰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훈련 반복으로 과민한 편도체는 진정되고, 지친 전전두엽은 회복되며, 해마는 새로운 안전 기억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정보를 수집했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영향받습니다. 불안의 주범은 내가 본 사실 자체가 아니

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 생각입니다.

CBT(인지행동치료)와 ACT(수용전념치료)로 불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CBT는 생각을 바꾸는 치료입니다. ‘지각→사고→감정→행동→결과’라는 연결 고리의 왜곡된 부분을 끊고, 새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인지 왜곡 수정으로 불안한 생각을 다루는 방법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속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각’입니다. 둘째, 생각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검증’입니다. 셋째, 왜곡된 생각을 합리적 대안 사고로 교체하는 ‘교정’입니다. 넷째, 감사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ACT는 불안과 함께 걷는 치료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뇌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성경적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 기도’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해 염려를 올려놓고, 손을 뒤집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기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떠올리며 들숨과 날숨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와 고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안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평안의 5단계 ‘P·E·A·C·E’를 기억하십시오. ‘P(Pause & Perceive)-멈추고 알아차리기’,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E(Examine

Thoughts)-생각 점검하기’, 사실인지 해석인지 점검합니다. ‘A(Accept & Align)-수용하고 가치에 맞추기’, 불안과 싸우지 않고 가치에 맞춰 행동하는 겁니다. ‘C(Cast to Christ)-그리스도께 던지기’, 손바닥 기도, 호흡기도, 감사일기로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E(Embrace Community)-공동체와 임재’, 불안을 목자, 상담자,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채규만 교수
(한국 및 미국 임상 심리전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지키자

하나님이 주신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식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약(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의약품이 자연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몸을 건강하게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거나 덜 받게 하려면 정서를 안정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를 안정시키는 음식에는 ‘트립토판(tryptophan)’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우유, 땅콩, 아몬드, 바나나, 대두, 계, 브로콜리 등입니다. 우리 몸에서 트립토판이 결핍되면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만성피로와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혈관 손상, 뇌 기능 저하, 장기 기능 악화, 면역 불균형,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녹차도 염증을 줄이는데 좋은 음식입니다. 녹차의 ‘가테킨’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차(茶) 같은 약선식품입니다. 캐모마일은 심리 안정, 라벤더는 불안과 우울, 불면 개선, 건과류 차는 항암, 심신 안정에 탁월합니다.

음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줄이는 데는 걷기, 러닝과 같은 유산소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소중한 몸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용일 장로
(청담경희한방연구소 원장)

몸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불안이 단순히 생각과 정신의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몸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운동과 정신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몸과 정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을 성경이 아니라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피트니스인이었습니다. 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트레이너는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인류 최

초의 피트니스센터를 오픈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운동을 했을까요? 운동이 사람의 정신을 돕고, 마음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영·혼·육이 서로 협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인정받으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혼·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있으라”고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만큼은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애써서 만드신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만 알고, 육체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혼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성육신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주무셨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지시고, 안으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종

교가 아닙니다. 새 몸을 입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전했습니다(고전 13:31). 바울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주호 대표
(한동대 글로벌 리더십 학부 겸임교수)

◆ 5월 21일(목)

애착과 불안: 안정애착으로의 여정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라는 질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애착’입니다. 애착 관계는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과 정서 조절을 배우는 훈련의 장(場)입니다.

애착 유형은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혼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관계 맺음이 편안하고 자유훁습니다. 불안/양가형은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의존적이고,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감정을 과잉으로 표현합니다. 회피형은 감정표현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의존이나 기대를 불편해합니다. 혼란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이고, 관계가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며, 감정과 행동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애착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보다 애착으로 형성된 틀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애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애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획득된 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상담자, 공동체 등 애착 관계에서 공감적이고, 일관된 정서적 수용으로 과거 애착이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감정, 욕구, 의도)을 이해하는 ‘정신화하기’도 중요합니다. 애착 변화의 초점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깊은 안정애착이 형성됩니다. 기도, 성찰, 공동체로 안정애

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고요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대화입니다. 성찰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감정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나눔과 공감으로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애착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안정애착으로의 여정일 뿐 아니라 영적 회복과 성장의 길입니다.



유현주 교수
(Soh 심리영성센터 소장)

공동체의 우울증 환자 돌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흔히 ‘쉬면 낫는 가벼운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실제 우울증은 골절 또는 깊은 창상 같은 질환입니다.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얹힌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은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하나의 증상을 가진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다 똑같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울증 치료는 임상 양상과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의 핵심은 단일 해법이 아니라, 증상의 강도, 불안 동반 여부 등 환자 상태에 맞춘 조합과 조정입니다. 치료는 근거 기반 지침에 따른 전문적 결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경험만으로 단순히 조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닌, 뇌의 병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의 재발은 환자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우울증은 뇌 기능과 정서 조절 체계에 영향을 미쳐 재발에 취약하게 합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인지적, 환경적 취약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발이 흔합니다. 보상과 동기 체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지 치료 없이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치료를 중단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울증은 완치보다는 관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회복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 관리의 과정입니다.

공동체는 우울증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의지를 강조하는 조언, 책임과 원인을 찾기, 고통을 축소하기, 영혼과 육체 중 하나만 강조하는 이원론 등입니다. 좋은 공동체란 문제 해결사가 아니

라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청과 동행으로 환자가 약물 복용과 진료받는 것을 지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함께 견뎌줘야 합니다.

정신건강은 회복의 기반입니다.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것은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 재발 방지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스트레스와 반추, 수면 문제를 줄이고, 심리치료와 운동, 생활습관 개선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십시오.



남윤영 박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우울과 자살의 경계에서 만나는 하나님

한국은 자살률이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울과 자살 문제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려면,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의 핵심은 ‘질문 기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입니다. 정신질환 발병이나 심리 정서적 문제가 일어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수면장애입니다. 보통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셔야 합니다. “몇시에 자고, 몇시에 일어나세요?”, “자다가 중간에 깨지는 않으

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약품이나 가위에 눌린 적은 없으세요?”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즘 밥 잘 드세요?”입니다. 폭식과 거식 등 식이장애는 심리 정서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간 질문이 “요즘 어떤 음식이 당기세요?”입니다. 매운 음식이 당기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면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입니다. 동반해야 하는 질문이 “무슨 일 있었어요?”입니다. 감정 변화의 촉발 요인을 찾는 질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늘 우울하던 사람이 갑자기 밝아지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 자살 실행을 결심한 사람은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살에 이르기까지 3단계가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혹시 지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게 좋습니다. 일명 ‘게이트키퍼(Gate keeper, 문지기) 질문’입니다. 자살에 대한 직접적 질문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세계 학자들의 결론

은 자살 위험성이 인지되는 순간 직접적인 질문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곧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죽음을 택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아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시합니다. 교회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해용 목사
(목회자마음돌봄 센터장)

기독교인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은 신앙의 문제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정신적 질병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정신적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신적 질병은 절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아닙니다.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입니다.

정신적, 정서적 문제에는 통합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통합적 돌봄의 신학적 근거는 <케이프타운 서약> 74페이지에 나옵니다. “모든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창조된 인간

성의 물리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측면들을 통합하는 실제적이고 통전적인 돌봄을 통해, 인간 삶의 고유한 존엄성과 신성함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면 약만 먹거나, 상담만 받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통합적으로 돌보는 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이론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뇌가 인간관계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뇌는 ‘관계’ 속에서 발달합니다.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애착’이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좌뇌와 우뇌, 상위 뇌(전전두엽)와 하위 뇌(편도체)가 통합되고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생활과 생각, 관계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뇌의 연결’을 끊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뇌는 평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관계의 경험은 손상되었던 뇌 회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영적 경험, 안전한 인간관계가 뇌를 재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실천하면 좋은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나누는 순간 신경계가 안정되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둘째, 감정을 명명하십시오. 감정을 명명하고 서술하는 것만으로

도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 감정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진정시키십시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슴을 두드리고,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와 함께하십시오. 트라우마를 겪어도 나를 귀히 여기는 존재가 있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섯째, 공동체와 함께하십시오. 회복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울을 극복하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기원 목사
(회복사역본부장)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2

사회주의 논쟁 한 가운데서 길을 찾다



신원석 목사
(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에서 사역하며 ‘분배와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돕는 주요

국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 회원국인데, 흥미롭게도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소유와 시장 흐름에 따른 효율적 생산성을 추구하여 창의적 혁신과 성장을 가져다주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사회주의는 재산의 사유화보다 공공성을 추구하고 약자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통제하며 노동자가 핵심 세력이 되어 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면 사회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 NGO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는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왜 사회주의 국가들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사회주의는 언제나 ‘진보’라는 깃발을 내걸고 등장하지만, 그 끝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착취, 체제의 몰락만을 남긴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분배와 복지’를 최우선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회주의’는 정말 성경적인가?”

사회주의의 태동

사회주의를 이해하려면 사회주의가 태동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사회주의의 아버지’ 장자크 루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는 봉건영주들과 왕정에 대항한 프랑스혁명이 그 뿌리다. 분노한 시민들은 무능한 부르봉 왕조와 귀족들(부르주아)을 몰아내고 시민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를 앞세워 국가 체제를 전복시켰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가톨릭교회의 재산도 모두 몰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가톨릭은 권력과 결탁해 시민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해 왔고, 부패한 가톨릭의 압제 밑에서 자유를 갈구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반기독교적 인본주의 철학들과 함께 프랑스 혁명

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반기독교적 혁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의 사상적 뿌리가 바로 장 자크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다. 특히 루소가 저술한 〈사회계약론〉은 분노에 찬 시민들을 깨우며 사회적 대변혁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는 착취와 압제의 뿌리가 되는 국가와 정부를 해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유재산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수많은 사회계약에 의해 묶여 있으며, 정부가 수립되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자연적 권리는 무너진다. 따라서 국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물리적으로 원시 상태의 평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이 아닌, 인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민들의 의지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민주권론’을 주장하여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원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변화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루소와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본질적 한계

칼 마르크스는 루소에게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사회는 ‘원시 공동체’로 회귀하는 사회다. ‘원시 공동체’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회, 즉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를 뜻한다.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는 기계화되어 언제든지 교체되지만, 자본가들은 가만히 앉아 노동자들이 벌어들여 주는 재화로 부를 누린다. 루소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았고(현대 산업사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는 루소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마르크스는 루소의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개인의 가치는 ‘계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을 오직 유산계급(부르주아)과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이라는 두 가지 계급으로만 분류하고,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의 독재를 저지하려면 무산계급에 의한 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이들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루소가 말한 원시 공동체(공산사회)가 완성된다고 믿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오직 계급으로만 정의되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는 개인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 무언가를 독창적으로 창조하려는 순간 그것은 계급 전체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공산사회주의는 개인을 거부하고, 노동자 공동체를 통해 통제된 사회 ‘전체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은 ‘시장과 자유’를 말하는 것 자체를 부르주아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수많은 지식인과 기업가를 숙청했다. 레닌 이후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사회주의는 언제나 전체주의로 귀결

왜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무분

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드는가? 그들이 지향하는 ‘원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져야 한다고 믿고 그 위에 만들어진 지지기반과 기업들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루소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문명을 파괴하고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 루소의 원시 공동체가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번영을 약속하지만 결과는 가난하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늘 획일화된 통제였다. 포퓰리즘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급기야 개인의 소유와 미래까지도 결정하려 한다. 결국 사회주의는 정의도, 평등도, 가난한 이들의 편도 아니다. 오직 지배계급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 언제나 전체주의 독재로 이어진다.

사회주의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과 함정에 빠진 사상이다.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시 공동체는 결국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뿐이다.

성경적 기초 위에서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가해체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가”를 주제로 또 다른 ‘사회계약론’인 〈국부론〉을 썼다. 〈국부론〉의 사상적 뿌리는 장 칼뱅의 개혁주의 사상에 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찾았다.

칼뱅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살후 3:10)는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라는 규율 잡힌 삶을 강조했다. 베버는 이러한 칼뱅의 사상이 자본을 축적하고 재투자하는 자본가의 윤리와 맞물렸다고 보았다. 또한 상업과 같이 이전에는 세속적인 일로 치부되던 노동을,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았다.

분명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공동체와 국가는 성경적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세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것이 창조 목적대로 제자리를 찾아 회복될 때, 사랑과 존중, 존경과 섬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를 통해 사람과 피조세계의 가치가 회복될 때 비로소 무너진 세상 속에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개인의 창의력과 창업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보장해 주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타인을 위해 섬기는 성경적 성숙한 문화가 만들어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원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변화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사단이 지배한 인본주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의 첫 번째 장면에 교회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책망을 기록하신 이유는 교회가 혼란에 빠진 세상 속에 유일한 빛이 되기 때문이다(꺄).

■ 연재 순서 1. '돈'은 과연 축복인가? 2.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 3. 올바른 투자의 관점 4.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

빛의 종노릇 하지 않는 방법 '자족'



오종규 성도
(前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장, 법무사)

돈이 추상화되고 사회화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맘몬의 권세가 인간을 합법적으로 결박시키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혹한 수단이 바로 '부채(Debt)', 빛이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 없이 대출을 권한

다. 부채가 신용의 형태로 변화해서 부채를 질 수 있는 권리가 하나의 재산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신용의 형태로 변화된 빛은 빛을 지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라(영끌)", "빛도 자산이다"라는 말들은 우리를 죄책감 없이 빛의 세계로 걸어가게 한다. 성경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린 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빛의 본질을 깨닫고, 빛 권한 사회가 맘몬이 처놓은 덫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그 길을 찾고자 한다.

성경이 말하는 '부채의 본질'

성경은 빛을 지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엄격하게 정의하여 정죄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나 양식을 빌리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리어 빌려주는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빛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영적 변화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일관되게 경고한다. 성경은 불가피하게 빛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적 경제생활은 인정하면서도, 채무를 지는 순간 마주하게 될 영적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이 말씀은 부채의 본질을 단 한 마디로 꿰뚫고 있다. 빛을 지는 순간 인간은 자유인으로서의 주권을 상실하고, 채권자(채주)의 종이 된다는 선언이다. 이 종속은 경제적인 계약 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빛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갇아먹는 강력한 영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빛진 자는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당해도 거부할 수 없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매달 나가야 하는 대출 이자 때문에 침묵해야 한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가와도 빛을 갇아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 때문에 선뜻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때로는 빛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인 경우도 보게 된다. 결국, 물질적인 부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수한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를 돈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종속시키는 영적 노예 사슬로 작용하게 된다.

필요 때문인가, 탐욕 때문인가

우리가 부채 문제를 직면할 때 반드시 정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내가 진 빛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필요(Need) 때문인가, 아니면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탐욕(Greed)과 비교 의식 때문인가?"

성경에 쓰인 고대 사회의 빛은 대개 가뭄이나 기근으로 인한 '생존형 부채'였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부채는 그 성격이 다르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SNS에 멋진 일상 과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조급함 때문에 빛을 지는 경우도 많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결합할 때, 인간은 너무 쉽게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경제 체제는 인간의 내면적 결핍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부채라는 덫을 놓는다. 그렇다면 이미 부채의 늪에 빠져 있거나, 대출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

첫째, '레버리지(빚)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 세상은 빛을 지혜로운 투자 기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성경은 빛을 위험한 올무로 간주한다. 대출을 전제로 한 무리한 투자나 자산 증식 계획을 멈추고, 빛에 대한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부채 상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빛을 갚는 것은 단순히 신용등급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맘몬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영적 해방 운동'이다.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를 먼저 하기보다, 빛을 청산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셋째, 보증이나 무분별한 채무 관계를 멀리해야 한다. 성경은 타인을 위해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또한 강력한 종속의 길임을 경고한다(잠 6:1-3). 재정적 책임은 철저히 자기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빛에 대한 올바른 분별법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를 탐욕의 결과로만 단정 짓고 전면 금기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창업을 위한 사업 자금 대출, 생계형 긴급 대출까지 모두 죄

로 치부해 버리는 율법주의적 잣대는 경계해야 한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선 탐욕의 빛일 뿐, 우리의 삶과 사명을 위한 필요에 의한 부채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부채에 대해 종속과 탐욕에 대한 영적 경고를 할 뿐, 합리적인 경제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도덕법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살펴보면 빛을 올바르게 분별하자.

첫째, 청년들의 '거주 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 자금 대출'이다. 청년들이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 빛이 아니다. 살기 위해 지는 생존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매달 소득의 큰 부분을 월세로 낭비하는 것보다, 제도를 활용해서 주거 비용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관리(칭지기적 관리)일 수 있다. 청년의 전세대출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건 강한 사회적 발판이므로 이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출이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황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통제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자금 대출'이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 부채'(Productive Debt)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 대출은 내가 가진 비전과 사명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빌려오는 행위다. 정직한 노동과 경영을 통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 대출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책 없는 무리한 확장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생계형 긴급 대출'이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기치 못한 재난, 혹은 당장의 생계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개인의 무능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짐을 져야 하는 '성경적 정의'(Justice)를 실현하는 자리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 정의의 개념은 구약의 율법(출 22:25, 레 25:35)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이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또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면제년'과 가난으로 팔린 모든 자산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희년 제도'를 두셨다. 이는 인간이 경제적 취약함 때문에 영원히 빛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랑과 정의의 안전망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성경적 정의를 우리 삶의 현

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는 이 거룩한 성경적 정의를 삶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 2016년부터 이웃의 무거운 부채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는 '부채탈출119' 사역을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 빛이라는 올무에 갇힌 이웃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가시화한 매우 귀한 사역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빛을 지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빛을 졌다"고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은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영적 통로가 되고, 공동체에게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고, 그 빛의 무게를 나누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맘몬을 이기는 '자족하는 마음'

구체적인 부채 상황 계획보다 훨씬 근본적인 영적 치유책이 있다. 우리 내면의 소비적 욕망과 비교 의식을 뿌리 뽑는 '자족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결핍된 환경에서도 놀라운 자유를 선포했다(빌 4:11~12). 바울이 고백한 '자족의 일체 비결'이야말로 맘몬의 부채 공격을 무력화하는 최고의 무기다. 자족은 무소유나 염세주의를 뜻하지 않는다. 나의 안전망이 내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자족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유혹(더 좋은 차, 더 화려한 명품,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기, 과시할 필요가 없고, 과시할 필요가 없기에 탐욕스러운 빛을 지지 않는다. 빛을 지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인인 '내면의 허기짐'이 우리를 만족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치유될 때 비로소 부채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족을 가르치는 이유는 율법적인 금욕주의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빛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자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빛진 자는 늘 채권자의 눈치를 보며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산다. 그러나 빛에서 해방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자원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언제나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권능의 삶을 산다. 빛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세상의 화려한 속임수에 속아 내 영혼을 맘몬에게 담보 잡히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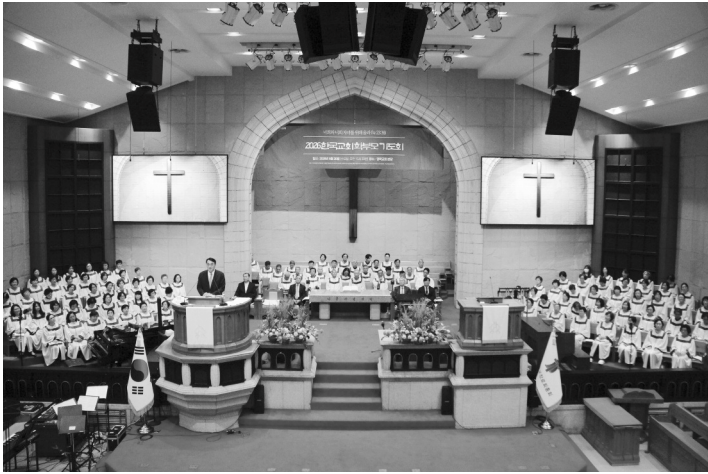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개최

목회자 및 관계자, 학부모 2천여 명 참석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눅 23:38)를 주제로 지난 5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한기채 목사, 김운성 목사, 김은호 목사 등 목회자 및 관계자, 학부모 성도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함승수 교수(명지대학교) 〈한국 교회 성도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발표,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대한민국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다음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세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기독교 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해’, ‘기독교 학교의 회복을 위해’ 등을 주제로 기도했다.

김정희 권사(일본어예배)는 “예수

님 말씀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낮은 마음으로 자녀와 한국 교회,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

5월 26일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스포츠전도팀에서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를 개최한다. 5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탁구선수 및 동호인,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010-8080-6967)로 하면 된다.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에서는 온누리탁구선교회의 실제 선교 현장 이야기와 간증, 스포츠 선

교의 중요성과 비전 등을 공유한다. 온누리탁구선교회 코치진의 레슨과 연습경기 등 탁구를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가 스포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스포츠 선교의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 개최

6월 6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가 오는 6월 6일(토)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종합관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월)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또는 공동체 총무에게 하면 된다. 탁구로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 열방탁구축제는 스포츠 선교를 위해 매년 이어지는 행사다. 온누리 탁구선교회가 주관한다. 올

해 온누리 열방탁구축제는 두란노 국제선교회(TIM) 소속 선교사들의 탁구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온누리교회가 주최한다. 캠퍼스 교회가 열방탁구축제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선교스포츠팀과의 융합선교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문의: 010-8761-4178
010-8470-1207

/ 남현영 기자

어린이 일대일명단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 강남A 김라임 김여진	■ 과천의왕 이재용 이기훈 이재은 김정경	■ 서초A 박가나 조수현 이에서 홍지연	■ 송파B 김지은 주은진	■ 푸른누리 최예람 표은정
■ 강남B 장서윤 추효진 허재유 유 리	■ 관악금천 강지서 서수경 김다은 정은희	■ 서초D 김리온 박주은 박현준 노성지 오성준 장효은 최시현 정지선 홍예준 정주영	■ 양재B 김시원 김상리	■ 하나 서정명 서민음 이소망 이광웅
■ 강남D 송태주 송기선	■ 분당A 이서우 이재준 이준희 박민경 이하영 이현정 정수현 김연아	■ 송파A 장하준 장부환	■ 영등포구로 배명은 배일호	
■ 경기A 심소울 이윤애 이루다 여혜영		■ 이수 김유진 김경은 한서윤 안수현		

CGN ‘힐링보이스’ 참가자 모집 마감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 1,602명 신청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참가자 모집을 마감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 연예계 활동 프

로 가수 등 1,602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힐링보이스’에서는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서바이벌 경연을 한다. 방송은 9월 CGN 채널과 CGN 풍당에서 공개한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CCM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대형 프로젝트다. 나이와 국적, 성별, 경력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자를 모집해서 주목을 받았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6월 1일 ‘온케어’ 오픈 예정

온라인 통합 행정 서비스 플랫폼

ON-care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통합 행정 서비스 플랫폼 ‘온케어’가 오는 6월 1일(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온케어는 성도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회의 행정 서비스와 신앙 활동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케어에서는 새가족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행사 신청, 교적 정보 확인, 수강 이력 조회, 순 출석 정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각기 분산되어 있던 교회 서비스를 한 공간에 통합해서 제공한다. 온케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

6월 13일 오전 10시 양재 온유흥

2026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가 ‘한동대학교가 꿈꾸는 비즈니스 선교 시스템’을 주제로 6월 13일(토)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온유흥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양재2000선교 비즈니스 선교팀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9908-0800
계좌번호: 토스뱅크 1002-5364-7342(JUNG SHAWN)

/ 박지혜 기자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전시회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 김재원 개인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북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장애인 화가들이 ‘2026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선영, 황유정, 최은우, 곽선양, 김대현, 최미애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5월 29일(금)까지 용산구청 용산아트갤러리(지하 1층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김재원의 개인전도 사랑을 갤러리(신관1층)에서 6월 13일(토)까지 열린다. ‘노을 지는 목장’, ‘무지개 동산’, ‘빛을 따라가는 여행’, ‘우리는 단짝’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18기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6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B동 2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수)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다. 회비는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청소년반에서는 8월 1일(토)부터 8월 6일(목)까지 태극 치앙마 이로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문의: 02-3215-3532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젊은부부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8만 원. 5월 2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대상은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성경적 가정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다.

문의: 010-6381-2483(남편)
010-4892-2661(아내)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 6기 참가자 모집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biblecollege.duranno.com)에 강의가 업로드된다. 양육과 부모의 역할 이해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6월 1일(월)까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제를 이해하고,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돕는다.

문의: 02-2078-3275

/ 남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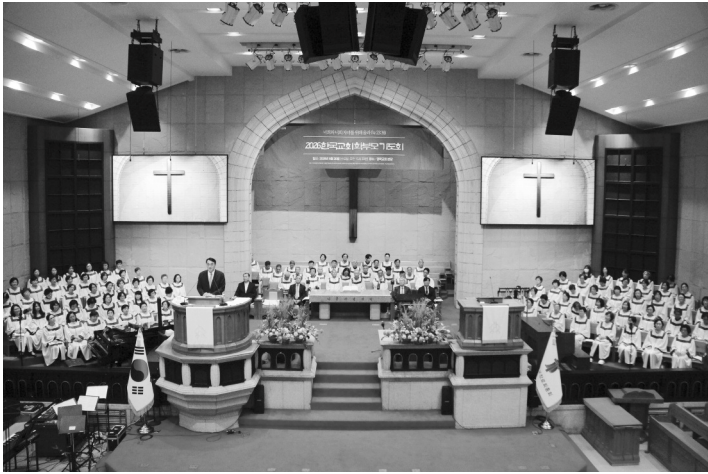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개최

목회자 및 관계자, 학부모 2천여 명 참석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눅 23:38)를 주제로 지난 5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한기채 목사, 김운성 목사, 김은호 목사 등 목회자 및 관계자, 학부모 성도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함승수 교수(명지대학교) 〈한국 교회 성도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발표,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대한민국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다음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세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기독교 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해’, ‘기독교 학교의 회복을 위해’ 등을 주제로 기도했다.

김정희 권사(일본어예배)는 “예수

님 말씀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낮은 마음으로 자녀와 한국 교회,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

5월 26일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스포츠전도팀에서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를 개최한다. 5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탁구선수 및 동호인,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010-8080-6967)로 하면 된다.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에서는 온누리탁구선교회의 실제 선교 현장 이야기와 간증, 스포츠 선

교의 중요성과 비전 등을 공유한다. 온누리탁구선교회 코치진의 레슨과 연습경기 등 탁구를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이야기가 스포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스포츠 선교의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 개최

6월 6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가 오는 6월 6일(토)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종합관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월)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또는 공동체 총무에게 하면 된다. 탁구로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 열방탁구축제는 스포츠 선교를 위해 매년 이어지는 행사다. 온누리 탁구선교회가 주관한다. 올

해 온누리 열방탁구축제는 두란노 국제선교회(TIM) 소속 선교사들의 탁구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온누리교회가 주최한다. 캠퍼스 교회가 열방탁구축제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선교스포츠팀과의 융합선교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문의: 010-8761-4178
010-8470-1207

/ 남현영 기자

어린이 일대일명단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 강남A 김라임 김여진	■ 과천의왕 이재용 이기훈 이재은 김정경	■ 서초A 박가나 조수현 이에서 홍지연	■ 송파B 김지은 주은진	■ 푸른누리 최예람 표은정
■ 강남B 장서윤 추효진 허재유 유 리	■ 관악금천 강지서 서수경 김다은 정은희	■ 서초D 김리온 박주은 박현준 노성지 오성준 장효은 최시현 정지선 홍예준 정주영	■ 양재B 김시원 김상리	■ 하나 서정명 서민음 이소망 이광웅
■ 강남D 송태주 송기선	■ 분당A 이서우 이재준 이준희 박민경 이하영 이현정 정수현 김연아	■ 송파A 장하준 장부환	■ 영등포구로 배명은 배일호	
■ 경기A 심소울 이윤애 이루다 여혜영		■ 이수 김유진 김경은 한서윤 안수현		

CGN ‘힐링보이스’ 참가자 모집 마감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 1,602명 신청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참가자 모집을 마감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 연예계 활동 프

로 가수 등 1,602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힐링보이스’에서는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서바이벌 경연을 한다. 방송은 9월 CGN 채널과 CGN 풍당에서 공개한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CCM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대형 프로젝트다. 나이와 국적, 성별, 경력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자를 모집해서 주목을 받았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6월 1일 ‘온케어’ 오픈 예정

온라인 통합 행정 서비스 플랫폼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통합 행정 서비스 플랫폼 ‘온케어’가 오는 6월 1일(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온케어는 성도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회의 행정 서비스와 개인의 신앙 활동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케어에서는 새가족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행사 신청, 교적 정보 확인, 수강 이력 조회, 순 출석 정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각기 분산되어 있던 교회 서비스를 단일 공간에 통합해서 제공한다. 온케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26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

6월 13일 오전 10시 양재 온유흥

2026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가 ‘한동대학교가 꿈꾸는 비즈니스 선교 시스템’을 주제로 6월 13일(토)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온유흥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양재2000선교 비즈니스 선교팀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9908-0800
계좌번호: 토스뱅크 1002-5364-7342(JUNG SHAWN)

/ 박지혜 기자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전시회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 김재원 개인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북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장애인 화가들이 ‘2026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선영, 황유정, 최은우, 곽선양, 김대현, 최미애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5월 29일(금)까지 용산구청 용산아트갤러리(지하 1층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김재원의 개인전도 사랑을 갈러리(신관1층)에서 6월 13일(토)까지 열린다. ‘노을 지는 목장’, ‘무지개 동산’, ‘빛을 따라가는 여행’, ‘우리는 단짝’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18기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6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B동 2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수)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다. 회비는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청소년반에서는 8월 1일(토)부터 8월 6일(목)까지 태극 치앙마 이로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문의: 02-3215-3532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젊은부부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8만 원. 5월 2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대상은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성경적 가정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다.

문의: 010-6381-2483(남편)
010-4892-2661(아내)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 6기 참가자 모집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biblecollege.duranno.com)에 강의가 업로드된다. 양육과 부모의 역할 이해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6월 1일(월)까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제를 이해하고,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돕는다.

문의: 02-2078-3275

/ 남현영 기자

2026 장로수련회 ‘뒤에서 비추는 빛’

온누리교회 장로, 교역자 등 650여 명 참석



2026 장로수련회 ‘뒤에서 비추는 빛’.

2026 장로수련회(이하 장로수련회)가 5월 22일(금)과 23일(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뒤에서 비추는 빛’을 주제로 열렸다. 온누리교회 장로(사역, 시무, 명예, 협동), 교역자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장로수련회 첫날에는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 목사 ‘요나단 리더십’ (삼상 14:6~7) 설교, 강부호 목사 축도, 이은미 상무 ‘세월을 읽다, 품격을 완성하다’

특강 등이 이어졌다. 가수 이무송 집사, 신텔라 자매, 김영미 권사의 특순도 있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영적 리더십은 인격적인 감동으로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로님들이 요나단과 같은 리더십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둘째 날에는 개별 QT, Danny Jung 특순, 패널토의 ‘뒤에서 비추는

빛, 그 아름다운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김정훈 장로는 “올해 장로수련회에서는 온누리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의 취지를 되새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를 위한 장로들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지혜, 남현영 기자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6월 25일 대회설명회, 8월 7일 접수 마감

2026 크리스천 벤처창업대회 ‘어!벤처스’ (이하 2026 어!벤처스, 대회장: 박기일 장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섰던 영향력을 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참가신청은 8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홈페이지(venture.skr) 또는 하단 QR 코드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비영리 단체 가능). 팀의 핵심 멤버 1인 이상은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회설명회는 6월 25일(목) TIPS 타운 S1 팀스홀에서 열린다. 8월 8일(토)부터 12일(수)까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한다. 최종 결선대회는 12월 5일(토) 개최한다. 수상팀에는 총 3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그랑프리팀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해외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을 수여하고,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영종온누리교회 ‘NEXT33’ 특별공동체 신설

33세 이상 미혼남녀를 위한 특별공동체

영종온누리교회가 33세 이상 미혼남녀를 위한 ‘NEXT33’ 특별공동체를 신설했다. 지난 3월 15일 첫 순예배를 시작으로, 현재 일요일 4부 젊은이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공식 창립예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영종온누리교회가 위치한 영종도는 인천공항과 관련된 근로자 약 7만 명이 상주 또는 이동하는 곳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신

앙생활을 이어갈 교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NEXT33’이라는 특별공동체를 신설하게 됐다. ‘NEXT33’ 특별공동체에서는 순예배와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또래 성도들이 교제하며 동역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인천공항과 영종도 등지에서 ‘기도모임’과 ‘주중성경공부모임’ 등을 만들 예정이다.

/ 남현영 기자

CGN 특집 다큐 ‘행복은? 이루네!’ 방영

5월 24일 CGN TV, 유튜브, 풍당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가정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행복은? 이루네!’를 방영한다. 5월 24일(일) 오전 10시 30분 CGN TV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CGN 풍당에서는 5월 24일 자정에 공개한다. 다큐멘터리 ‘행복은? 이루네!’에서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우준 목사와 최문희 사모의 가정 이야기를 소개한다. 5남매 중 막내를 돌 무렵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픔을 겪었고,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양육하

고 있다.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장인 장모까지 총 8명이 한집에서 사는 일상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배우 오윤아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CGN 관계자는 “가정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행복은? 이루네!’를 시청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75-9456

/ 박지혜 기자

‘낮은 마음 그리고 동행’

6월 9일까지 온누리아트비전 회원전

온누리아트비전 5월 정기회원전 ‘낮은 마음 그리고 동행’이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열리고 있다. 6월 9일(화)까지 전시한다. 온누리아트비전 정기회원전에서는 매년 온누리교회 표어를 주제로 묵상한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회원 작가 32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판매수익금 일부는 사회선교에 쓰인다. 온누리아트비전은 온누리교회 성도로 구성된 미술인 선교모임이다. 사회선교부에 소속된 예술 문화사역단체이다. 문의: 010-3128-2332

/ 남현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한동대 MK LOVE FEAST 목회자, MK학생 170여 명 참석

한동대학교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 학생들을 위한 ‘한동대 MK LOVE FEAST’ 행사가 지난 5월 13일(수)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홀에서 열렸다. 박성진 총장(한동대학교), 노규석 교목실장(한동대학교), 김흥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한동대 MK 학생 및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성진 총장 환영 인사, 노규석 교목실장 기도, MK 격려, 학생 간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동대 MK LOVE FEAST 초기부터 섬겨온 심상선 권사(양재권사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3, 4주 차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들은 5월 24일(일)까지 전화(010-4427-5025) 또는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40만 원(자녀 동반 시 1인당 7만 원 추가).



성동광진공동체 마리아다락방,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 야외 교제 행사.

성동광진공동체 마리아다락방,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따뜻한 만남’

성동광진공동체 마리아다락방이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지난 5월 15일(금)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성동광진공동체 마리아다락방이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을 초대해서 용산가족공원에서 야외 교제 행사를 개최했다. 야외 예배, 레크리에이션, 점심식사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신지현 권사(성동광진공동체 마리아다락방장)는 “다락방 식구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웃고, 뛰어놀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최미애 화가(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소망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입교 간증



/ 남기윤 형제(제주온누리교회)

6주 동안의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고, 한층 더 깊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 부모님의 신앙과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입교 교육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신앙적인 질문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흔들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여전히 불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며 위로와 확신을 얻었다. 오늘의 결심을 잊지 않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친구들과 말씀과 삶을 나누며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평소에는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부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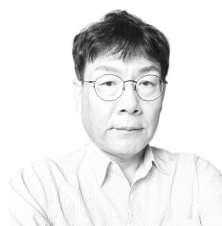
중요한 출발점

나는 곧 가족을 떠나 유학을 가게 된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다.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서도 좋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갈 것이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고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시간을 내어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귀한 은혜와 신앙의 회복을 대학에서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 그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번 입교 교육은 단순히 교회의 한 절차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을 맡겨드리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다.

OBC 수료 간증



/ 박종현 성도(양지온누리교회)

OBC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배우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늘 나 자신이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녀의 진로, 거주지, 취업 등 모든 중대사를 결정할 때 세상의 기준과 형편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눌려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내 삶의 언저리에 신앙을 끼워 넣는 ‘생활신앙’에 머물러 있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 분주히 움직였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괴로워했다. 당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거나 내 노력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였다. 소심함과 열등감, 부모님과의 상처로 얼룩진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늘 두려움 속에 있었다.

양지온누리교회 OBC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배워가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고난의 자리가 나를 벌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초대장’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한다. 여전히 내 안에는 소심함과 두려움의 잔재가 남아 있고, 때로는 말씀 속의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낮설어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자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 상처와 열등감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앞드린다.

이제는 배움을 넘어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려 한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공식이 아닌, 내가 배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만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삶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내 삶의 온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것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심을 믿고,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이현정 안수집사(동작공동체)

올해 우리 공동체 계획 중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들었다. 리더십은 필참이라는 말에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개입하시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첫째 주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보다 남편을 묵상하게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불만과 섭섭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은혜란 날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벽 앞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부는 서로의 중보자요 치료자이며 후원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어려워졌다. 내게 남편은 수많은 슬픔의 원인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남의 편’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강의 내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집에 돌아와 〈시편〉을 통독하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 부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만 드

러나는 것 같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4월 한 달 동안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 옆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였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셨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주신 가정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내 행복을 깨뜨리고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셨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부르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힘든 시간 속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음을 깊이 깨달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한터공동체 세례 간증



/ 박윤희 성도(한터공동체)

나는 2006년 1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드시고 인도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한국에 오기까지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탈북 과정에서 한 번 붙잡히기도 했고, 태국에서는 수용소로 가야 했던 나를 한 경찰관이 교회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머물고 있던 교회에 태국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는 일도 있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지켜주셨다. 막힌 길 앞에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돌이켜보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분명히 느낀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더욱 감사하다.

특히 하나님이 이번에 세례를 받은 현우와 큰아이 윤우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린다. 만약 이 아이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이다.

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부모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 위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결단한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한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이들을 맡겨드린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화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근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피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교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347-11 안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살교회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한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김태웅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3 4층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외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울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울길 166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틴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천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sa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HA DA1A 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illegible]

소천 5/16(토) 가정사역 유승윤 집사 부친상, 김미정 권사 시부상 고 유준형 5/16(토) 양천 김미영 집사 부친상, 박은재 집사 빙부상 고 김봉수 5/17(일) 김포 어정호 성도 부친상, 송효성 성도 시부상 고 윤세진 5/18(월) 강남C 정혜선 성도 부친상, 장동원 성도 빙부상 고 정동준 5/18(월) 온민을 허광수 장로 모친상, 이한성 권사 시모상 고 이정순 5/18(월) 서초B 강원석 성도 부친상 최미정 성도 시부상 고 강신구 5/19(화) 고양은평 전진성 성도 모친상, 문혜영 성도 시모상 고 신춘자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신청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계층 간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5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정식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북방성당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교회 현금관리 안내 신임주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결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녀수련관 3층) 상담 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광고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사역: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건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온누리선교재단 인사/노무 전문가 정규직원 채용 업무: 인사기획, 노무관리 등 자격: 대졸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등 우대: 노무법인 등 실무자 적극 우대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	--	---	--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의 일꾼 (골1:23)

일시: 2026년 5월 23일(토) 16:00

15:30분부터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 및 온누리교회 국내외 비전교회 본당

일시: 2026년 5월 27일(수) 19:30

19:00분부터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뚝로 31길 70)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하루 특별 시편잠언 학교

땅을 적시는 소낙비 (시 72:6)

제14기 어머니, 여성을 위한
하루 특별 경배와찬양학교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1)

일시: 5월 23일(토) 09:00-16: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훈련비: 1만원 (우리은행 1005-303-051125)

*현장등록은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일시: 5월 18일(월) 10:00-16:00

장소: 온누리교회 비전홀 (선교관 3층)

*훈련비: 2만원 (우리은행 1005-303-051125)

*현장등록은 9시부터 시작됩니다.

*강의 중에는 자녀를 위한 학습센터가 진행됩니다.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큰잔치는 하스데반 선교사와 국제사역팀이 인도합니다.

문의처: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한국 Tel +82 (0)2 796 9700 / 독일 Tel +49 (0)179 5705756
Homepage: allnationen.org / Email: 7000school@gmail.com